



STL MARKET REPORT

Weekly Focus No.342

Updated March 23, 2021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Contents

Issue & Trend	1
Bulk Carrier	5
- BC Sales Report	
Tankers	9
- Tanker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3
Key Indicators	16
STL News & Information	18
Contact Information	20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 . ISSUE & TREND

1. 파나막스, 곡물 강세에 FFA 시장 상승세 지속

지난 19 일 건화물선 운임지수(BDI)는 2281 을 기록했다. 벌크 시장은 지난 주 모든 선형서 성약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파나막스선의 초강세로 인해 케이프선과 수프라막스선으로 화물이 이관되기도 했다. BDI 는 전일보다 66 포인트 상승했다.

케이프 운임지수(BCI)는 전거래일보다 68 포인트 상승한 2344 를 기록했다. 지난 주 케이프 시장은 브라질 철광석 선적 수요가 늘어나면서 상승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중국 철강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요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중국 정부가 대기오염 감축으로 제철소 가동을 제한한 점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케이프선의 1 일 평균 정기용선료는 전주보다 2764 달러 상승한 2 만 2067 달러를 기록했다.

파나막스 운임지수(BPI)는 전거래일보다 153 포인트 상승한 2975 를 기록했다. 파나막스 시장은 남미 대두와 북미 옥수수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해상운임 선물거래(FFA) 시장에서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급등세가 지속됐다고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밝혔다. 또 인도에서 몬순에 대비해 석탄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고, 인도네시아가 4 월 중순부터 라마단에 들어가면서 물량 밀어내기가 계속되고 있다. 금주에도 선복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태평양 수역은 성약 파나막스선의 1 일 평균 정기용선료는 2 만 9402 달러로 전주 대비 5805 달러 올랐다.

수프라막스 운임지수(BSI)는 2122 로 전거래일보다 8 포인트 상승했다. 수프라막스 시장은 대서양 수역의 경우 흑해와 멕시코만에서 선복이 부족할 정도로 수요가 많았지만, 나머지 항로에서는 약보합세를 기록했다. 태평양 수역은 인도로 향하는 석탄 수요가 꾸준했다. 금주는 파나막스의 선복 부족으로 인한 화물 이관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수프라막스선의 1 일 평균 정기용선료는 전주보다 2466 달러 상승한 2 만 6983 달러를 기록했다.

I . ISSUE & TREND

2. 원자재값 급락에 원자재 슈퍼사이클 맞나 논란

최근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 기대 속에서 원자재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추세(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단정하긴 이르다는 주장 역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기술발전 등에 따른 공급확대가 가능해 과거 슈퍼사이클 상황과 다르며 수급 이외에 원자재 시장을 좌우할 변수가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주 원유, 옥수수, 구리 선물가격이 일제히 급락하면서 원자재 슈퍼사이클 진입 여부에 대한 신중론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8 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4 월물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 가격이 배럴당 60 달러로 전날보다 7.1% 급락했다. 장중에는 배럴당 58.2 달러까지 밀리며 5 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같은 날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커피원두 선물 가격은 1.9% 떨어지며 2 개월래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옥수수, 구리 등 다른 원자재 가격도 일제히 하락했다. 원자재 현물 가격 흐름을 반영하는 블룸버그 상품 현물지수는 2.4% 추락하며 지난해 9 월 중순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는 유럽 내 코로나 19 백신 보급 속도가 지연되면서 원자재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심리가 위축됐고 미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자재값을 끌어내렸다.

올들어 유가가 30% 넘게 오르고 옥수수, 대두, 구리 역시 수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원자재 슈퍼사이클 진입 주장에 힘이 실렸지만 이 같은 원자재 열풍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렸다.

원자재펀드도 최근 주춤하는 모양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원자재펀드 설정액은 지난 1 개월간 2789 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수익률도 3.13% 하락했다.

스톤 X 의 알란 수더만 수석원자재 이코노미스트는 "국채금리와 달러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에 반응하며 원자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곡물, 금속, 원유, 가스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수년, 혹은 수십년 동안 지속되는 장기 상승장이 재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슈퍼사이클 주장은 과장된 것처럼 보인다"고 보도했다.

I . ISSUE & TREND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가 급속히 확장하면서 원자재 수요에 힘이 실릴 수는 있지만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면 가격 상승도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지난 17일 원유시장 보고서에서 "유가가 배럴당 70 달러 가까이 급상승하면서 시장 일각에서 '슈퍼사이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IEA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반대로 나왔다"며 "석유재고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긴 하지만 역사적 수준에 비해선 여전히 많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대신증권 연구원은 "그린뉴딜정책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산업구조 변화는 비철금속 중심의 구조적 수요증가 효과가 있겠지만 원자재 가격이 어느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한다면 최근 니켈의 사례처럼 기술 발전이 원자재 가격 상단을 제한할 것"이라며 "원자재 슈퍼사이클을 기대하기 힘든 이유"라고 말했다.

3. 고개드는 경기회복론 불구 기저효과 빼면 제자리...착시현상 주의

잇따른 경기반등 신호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사실상 제자리라는 지적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제충격으로 이달부터 착시현상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해 3.3%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언뜻보면 2011년 이후 최대폭 증가지만,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1.0%)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평년 수준을 겨우 회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019년 성장률은 2%였고, 2018년엔 2.9%였다. 정부가 말하는 '브이(V)자' 경기반등과는 거리가 멀다.

고용이나 소비 지표도 호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저효과 탓이 크다.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47만 3000명 감소해 1월 감소폭(-98만 2000명)의 절반으로 축소됐다. 지난해 3월 고용충격이 본격화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달 고용지표도 호조세가 확실시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인한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눈에 띄게 완화된 모습"이라며 "백신접종 개시, 방역 거리두기 완화, 수출 개선세 지속, 작년 3월 고용 충격에 따른 기저 영향 등을 감안하면 3월에도 고용지표 개선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호평했다.

I . ISSUE & TREND

'3 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는 코로나 19 경제위기 내내 빠지지 않았던 '실물경제 불확실성'이란 표현이 삭제됐다. 하지만 경기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싸늘한 상태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기저효과 영향을 받는 3 월 취업자 수 증가폭을 봐야 하는데, 증가세로 돌아서더라도 10 만명 이하일 것"이라며 "이걸로 경기가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정책 효과는 1 년 이상 시간이 필요한데, 돈을 뿌린 정책은 이미 효과가 소진됐다"고 덧붙였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지금 경기반등을 말하는 것은 건강부회(牽強附會)"라며 "우리나라는 규제와 고용이 워낙 경직적인 나라가 돼서 회복기에 들어섰을 때 오히려 미국 등 역동적인 나라에 비해 회복이 훨씬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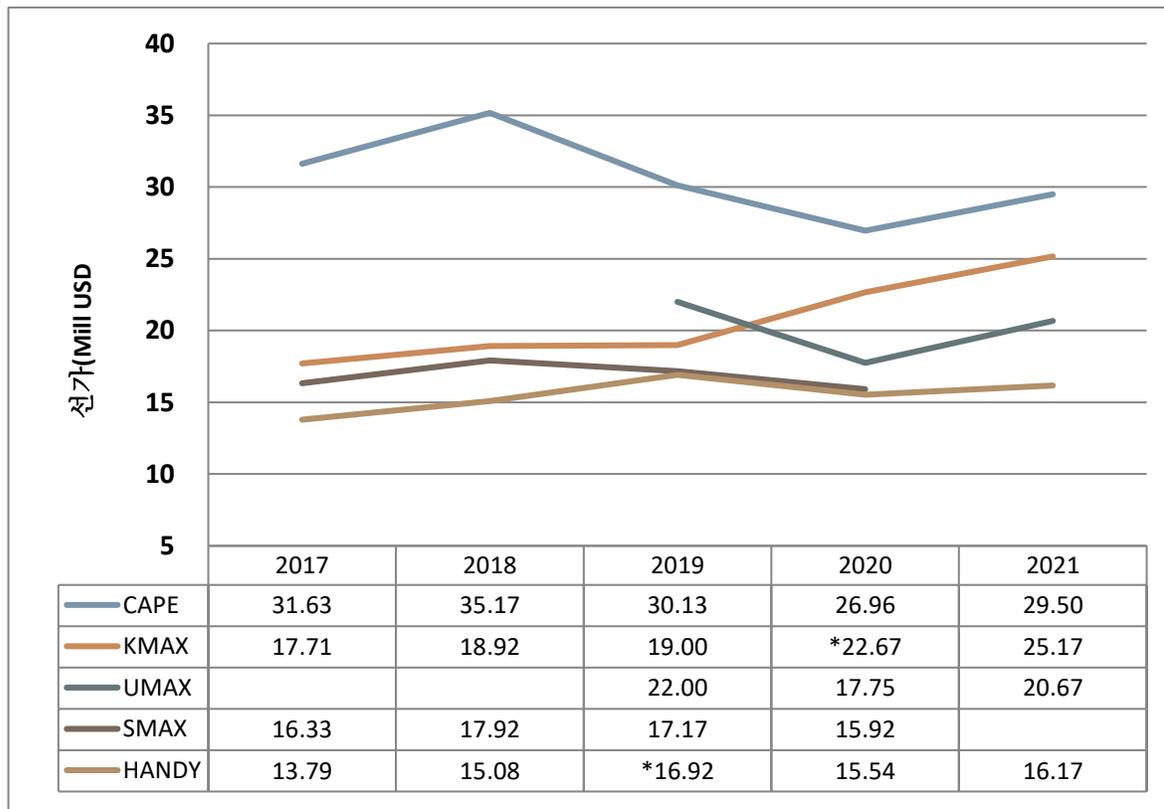
II .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연평균 선가	2017	2018	2019	2020	2021
Capesize 180K	31.63	35.17	30.13	26.96	29.50
	31.43%	11.20%	-14.34%	-10.51%	9.43%
Kamsarmax 82K (*19 년까지는 76K 기준)	17.71	18.92	19.00	*22.67	25.17
	29.57%	6.82%	0.42%	19.30%	11.03%
Ultramax 60-61K (19 년부터)	--	--	22.00	17.75	20.67
	--	--	--	-19.32%	16.43%
Supramax 58K (20 년까지)	16.33	17.92	17.17	15.92	--
	25.44%	9.69%	-4.20%	-7.28%	--
Handysize 37K (*18 년까지는 32K 기준)	13.79	15.08	*16.92	15.54	16.17
	38.78%	9.37%	12.18%	-8.13%	4.02%

□ BC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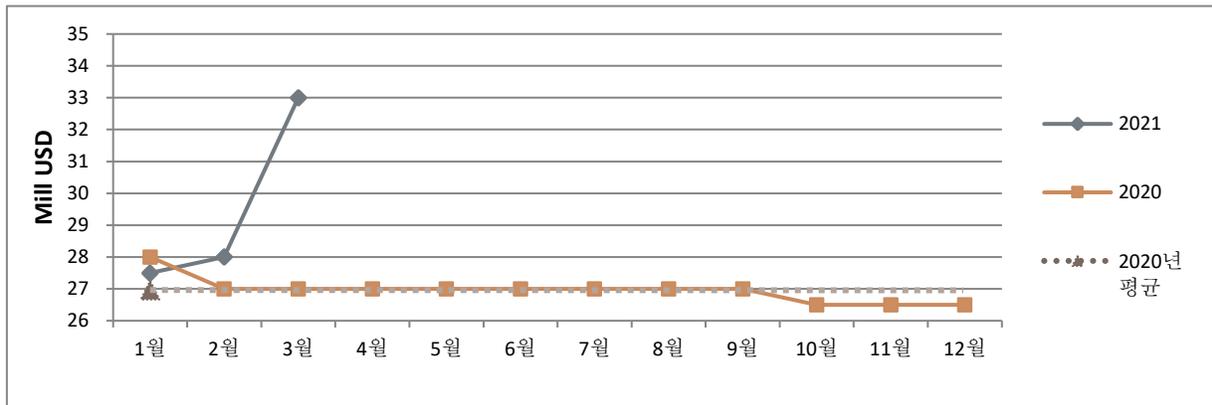




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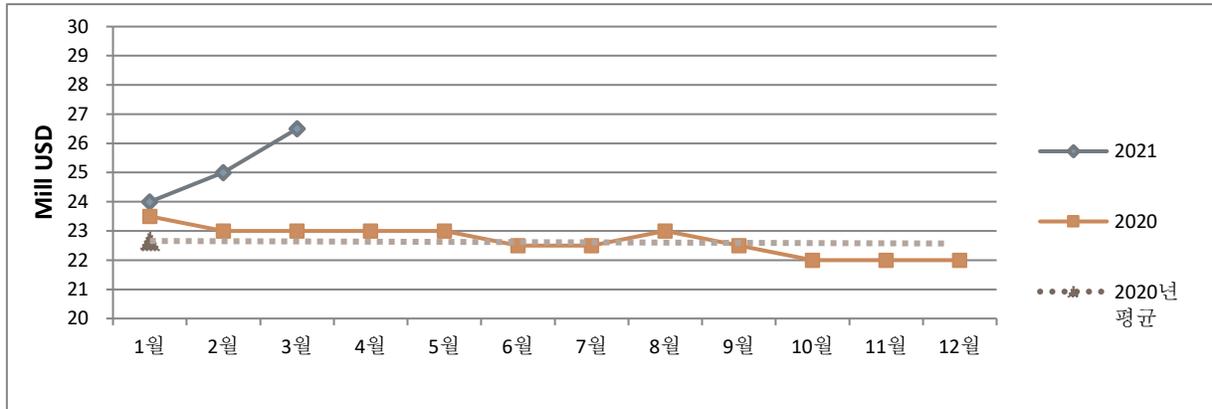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평균	
2021	CAPE 180K	선가	27.50	28.00	33.00				29.50
		전월대비	3.8%	1.8%	17.9%				-
		전년대비	-1.8%	3.7%	22.2%				9.4%
	KMAX 82K	선가	24.00	25.00	26.50				25.17
		전월대비	9.1%	4.2%	6.0%				-
		전년대비	2.1%	8.7%	15.2%				11.0%
	UMAX 60-61K	선가	20.00	20.50	21.50				20.67
		전월대비	12.7%	2.5%	4.9%				-
		전년대비	--	--	--				29.50
HANDY 37K	선가	14.75	16.25	17.50				16.17	
	전월대비	0.0%	10.2%	7.7%				-	
	전년대비	-13.2%	-4.4%	2.9%				4.0%	
2020	CAPE (180K)	28.00	27.00	27.00	27.00	27.00	27.00	26.96	
	KMAX (82K)	23.50	23.00	23.00	23.00	23.00	22.50	22.67	
	SMAX (58K)	17.00	16.50	16.50	16.50	16.00	15.50	15.92	
	HANDY (37K)	17.00	17.00	17.00	17.00	15.50	15.00	15.54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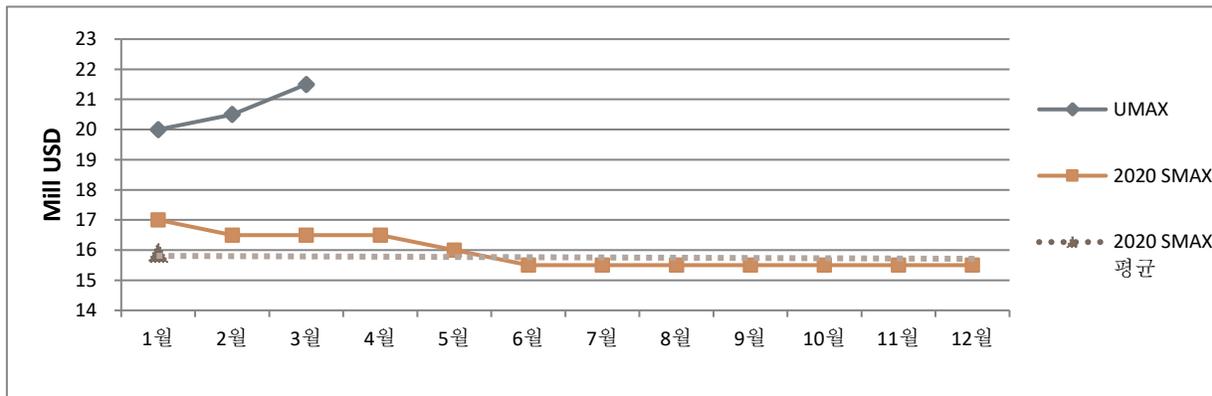


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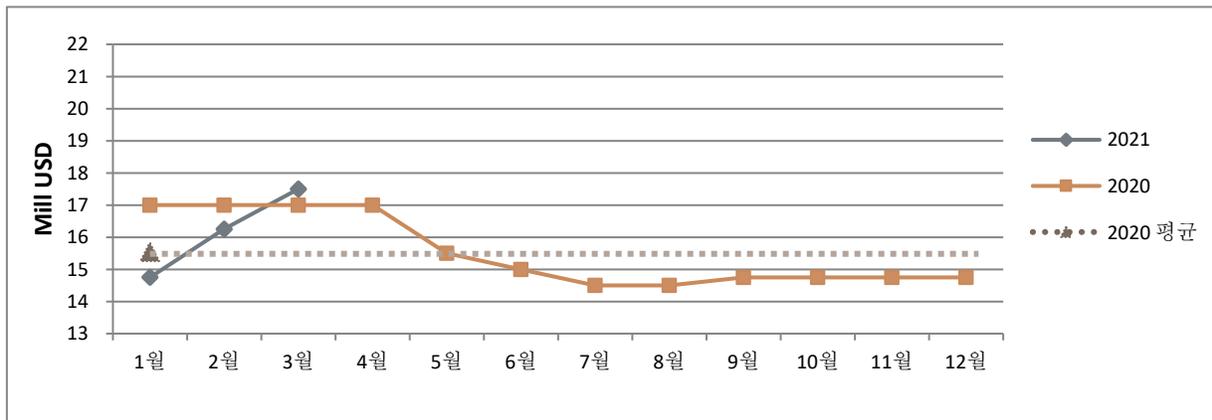
□ Kamsarmax



□ Ultramax & Supramax



□ Handy



II . BULK CARRIER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UNITED BREEZE	181,325	2012	JAPAN	B&W		28.5	Greek buyer, BWTS fitted
BC	PACIFIC CANOPUS	180,330	2012	CHINA	B&W		20.8	Greek buyer (PrimeBulk)
BC	CAPE ARIA	176,346	2005	JAPAN	B&W		16.8	Far East buyer
BC	KARLOVASI	82,354	2016	JAPAN	B&W		26.9	Denmark buyer (Norden), BWTS fitted
BC	UWS 2	82,300	2020	CHINA	B&W		54.8-2EB	Denmark buyer, BWTS fitted
BC	UWS 3	82,300	2020	CHINA	B&W			
BC	PEAK PROTEUS	82,158	2013	JAPAN	B&W		19.5	Undisclosed buyer
BC	STELLA DORA	81,055	2014	CHINA	B&W		22	S. Korea buyer, BWTS fitted
BC	JASMINE A	76,500	2006	JAPAN	B&W		11.0-11.1	Undisclosed buyer
BC	NAIAS	73,664	2006	CHINA	B&W		11.25	Greek buyer
BC	DIMITRIS L	73,193	2001	CHINA	B&W		7.1	Chinese buyer
BC	TAIZHOU SANFU (SF130130)	63,345	2018	CHINA	B&W	C 4x36t	25.2	European buyer
BC	GLOBAL VENUS	58,635	2013	JAPAN	B&W	C 4x30.5t	16.5	Undisclosed buyer, BWTS fitted
BC	ORCHID HALO	56,174	2012	JAPAN	B&W	C 4x30t	14.5	Undisclosed buyer, BWTS fitted
BC	AMBER BEVERLY	53,176	2011	CHINA	B&W	C 4x36t	11	Undisclosed buyer
BC	CHANG YU HAI	52,239	2003	PHILIPPINES	B&W	C4x30t	7.66	Chinese buyer (Wanjiang Financial Leasing)
BC	BASIC PIONEER	37,196	2011	JAPAN	MITSU	C 4x30t	12.5	Greek buyer
BC	AZUL	30,587	2007	INDIA	B&W	C 4x30t	7.7-7.8	Undisclosed buyer, BWTS fitted
BC	HTK SUNRISE	29,828	2006	JAPAN	B&W	C 4x30.5t	7.35	Greek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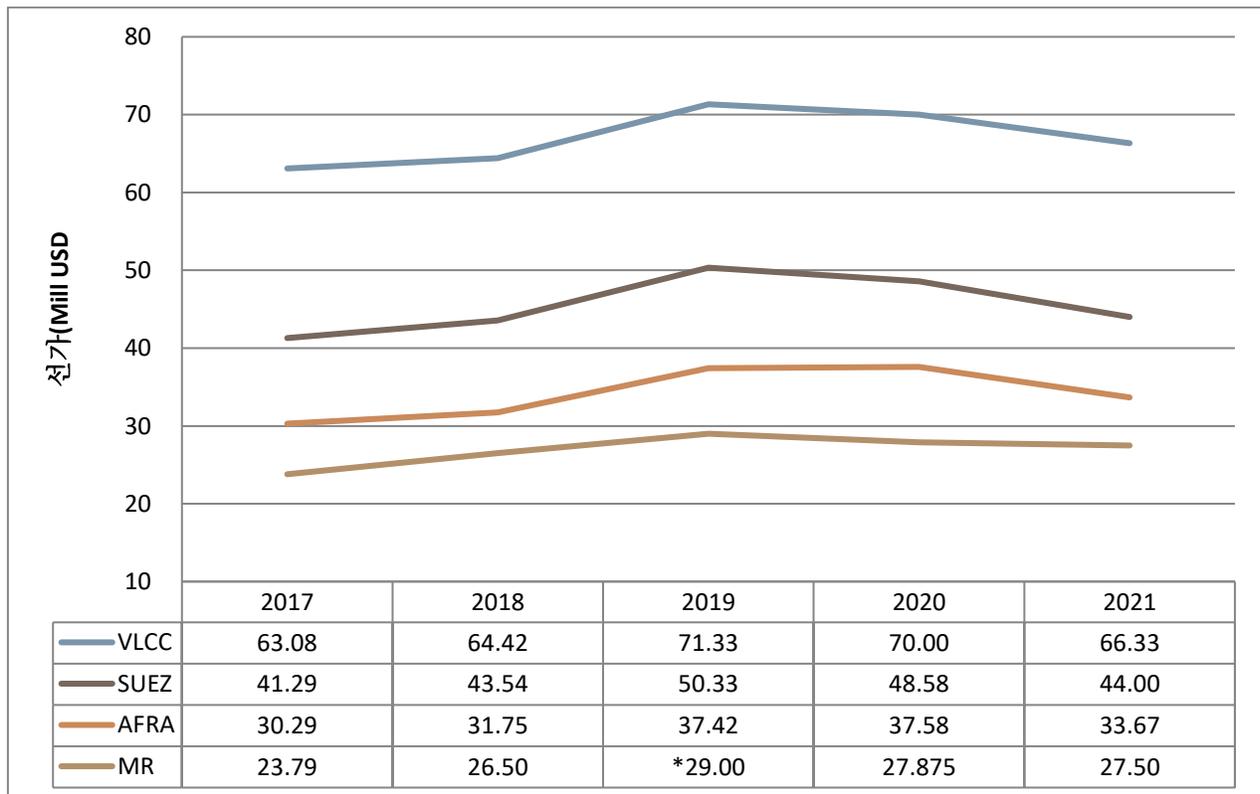
III.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VLCC 310K	63.08	64.42	71.33	70.00	66.33
	-6.89%	2.11%	10.73%	-1.87%	-5.24%
Suezmax 160K	41.29	43.54	50.33	48.58	44.00
	-15.15%	5.45%	15.60%	-3.48%	-9.43%
Aframax 105K	30.29	31.75	37.42	37.58	33.67
	-15.66%	4.81%	17.85%	0.45%	-10.42%
MR 51K <small>*18년까지는 49K 기준</small>	23.79	26.50	*29.00	27.875	27.50
	-4.19%	11.38%	9.43%	-3.88%	-1.35%

□ TANKER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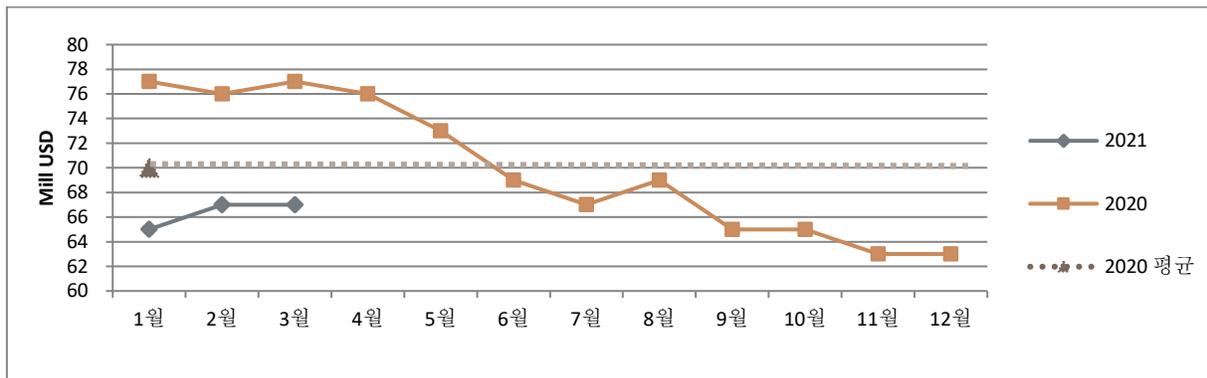




III. TANKER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	
2021	VLCC 310K	선가	65.00	67.00	67.00				66.33
		전월대비	3.2%	3.1%	0.0%				-
		전년대비	-15.6%	-11.8%	-13.0%				-5.2%
	SUEZ 160K	선가	44.00	43.00	45.00				44.00
		전월대비	2.3%	-2.3%	4.7%				-
		전년대비	-17.0%	-18.9%	-15.1%				-9.4%
	AFRA 105K	선가	33.00	33.00	35.00				33.67
		전월대비	1.5%	0.0%	6.1%				-
		전년대비	-19.5%	-22.4%	-17.6%				-10.4%
	MR 51K	선가	27.50	27.50	27.50				27.50
		전월대비	5.8%	0.0%	0.0%				-
		전년대비	-8.3%	-11.3%	-11.3%				-1.3%
2020	VLCC	77.00	76.00	77.00	76.00	73.00	69.00	70.00	
	SUEZ	53.00	53.00	53.00	53.00	51.00	49.00	48.58	
	AFRA	41.00	42.50	42.50	42.50	40.00	37.50	37.58	
	MR	30.00	31.00	31.00	30.00	28.00	27.50	27.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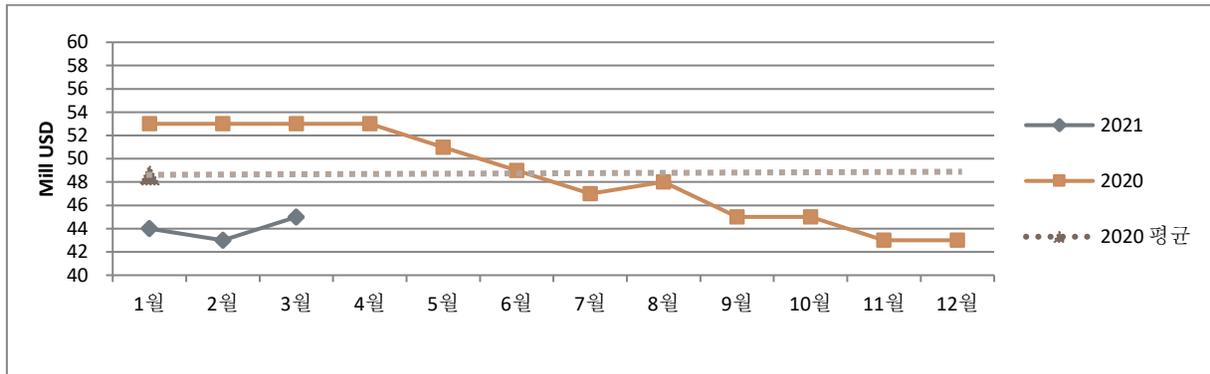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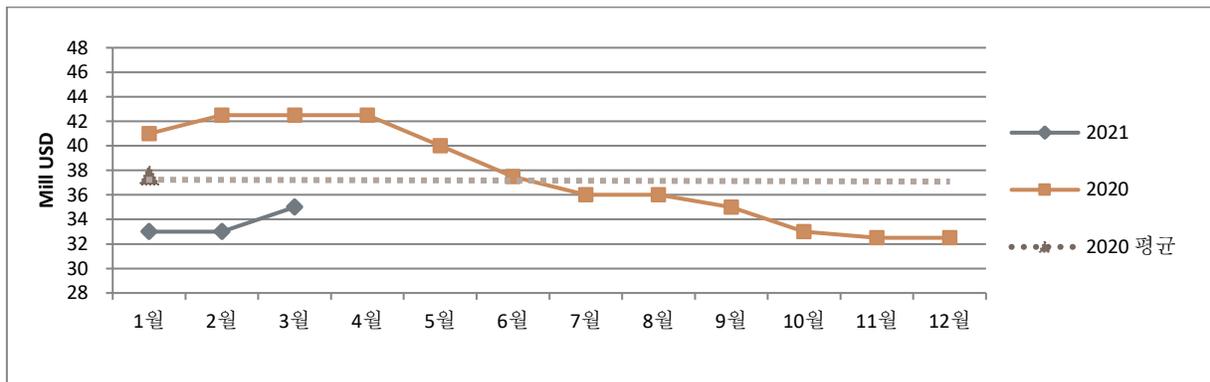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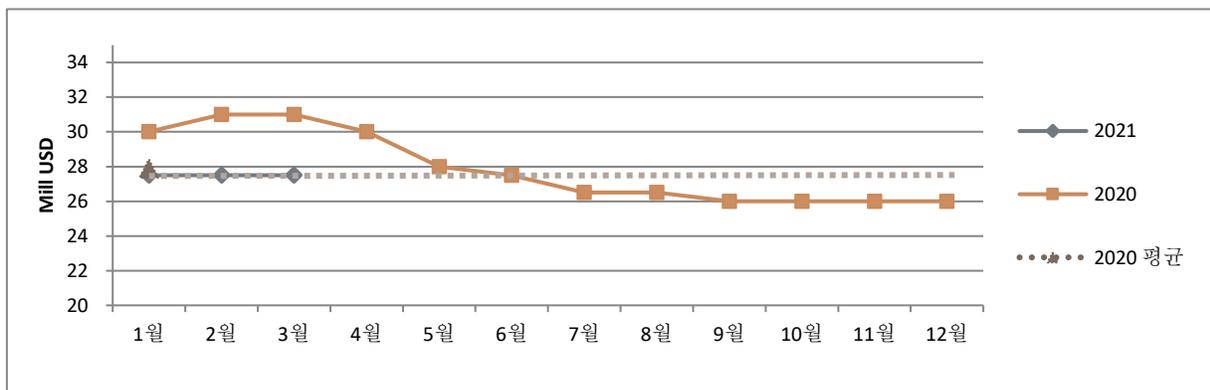
□ SUEZMAX-160K



□ AFRAMAX-105K



□ MR-51K



III. TANKER

IV-1. Tanker Sales Reported

1) TANKER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MARAN CYGNUS	306,317	2001	KOREA	B&W		23.7	Chinese buyer
TANKER	DONG JIANG	50,100	2009	KOREA	B&W		22-2EB	Greek buyer
TANKER	CHANG JIANG	50,100	2009	KOREA	B&W			
TANKER	EMERALD TARS	37,270	2005	KOREA	B&W	3	8.2	Undisclosed buyer, BWTS fitted
TANKER	AULAC JUPITER	13,654	2008	CHINA	ETC		4.1	Middle Eastern buyer

2) CONTAINER, REEFER, ETC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IRENES RELIANCE	39,423	2005	KOREA	B&W	2824	TEU	16.1	Thai buyer (RCL)
CONT	RATANA THIDA	18,196	1996	JAPAN	B&W	1094	TEU	2.45	Thai buyer (RCL)
CONT	VERONICA B	14,011	2011	CHINA	WART	1084	TEU	8	Undisclosed buyer
CONT	PICTOR	12,640	2009	SPAIN	MAN	925	TEU	5	Switzerland buyer (MSC)
CONT	CSCL NAGOYA	12,364	2008	CHINA	B&W	908	TEU	5.7	Far Eastern buyer
CONT	PERSEUS	12,108	2008	SPAIN	MAN	925	TEU	5	Switzerland buyer (MS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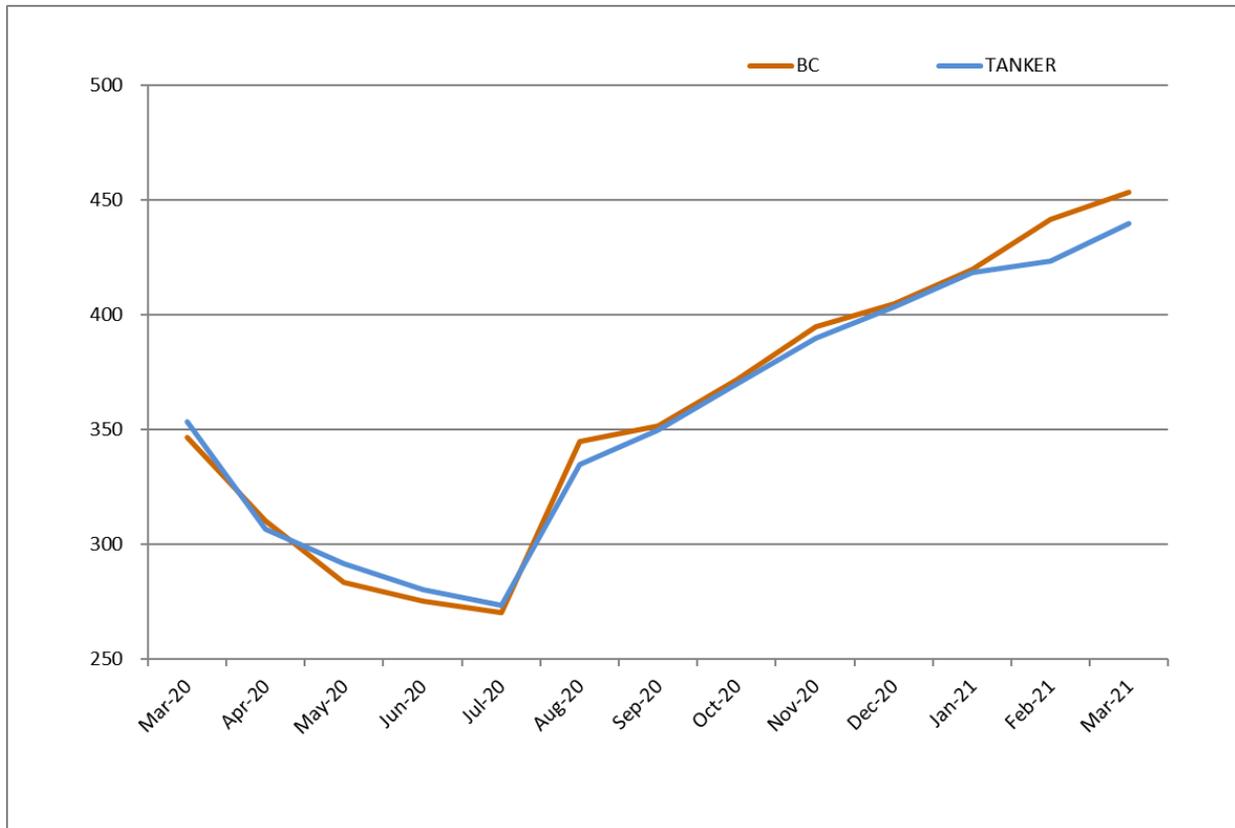


IV. DEMOLITION

1) 선가

해체선가 (US\$/LDT)	2019 평균		2020 평균		2021 평균		2020 년 3 월	2021 년 3 월		
		증감률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전년대비)	
TANKER	396.39	-8.4%	344.44	-13.1%	427.22	24.0%	353.33	440.00	3.9%	24.5%
BC	398.75	-9.5%	344.58	-13.6%	438.33	27.2%	346.67	453.33	2.6%	30.8%

❖ 기준 : 인도해체선시장(USD/LDT), 증감률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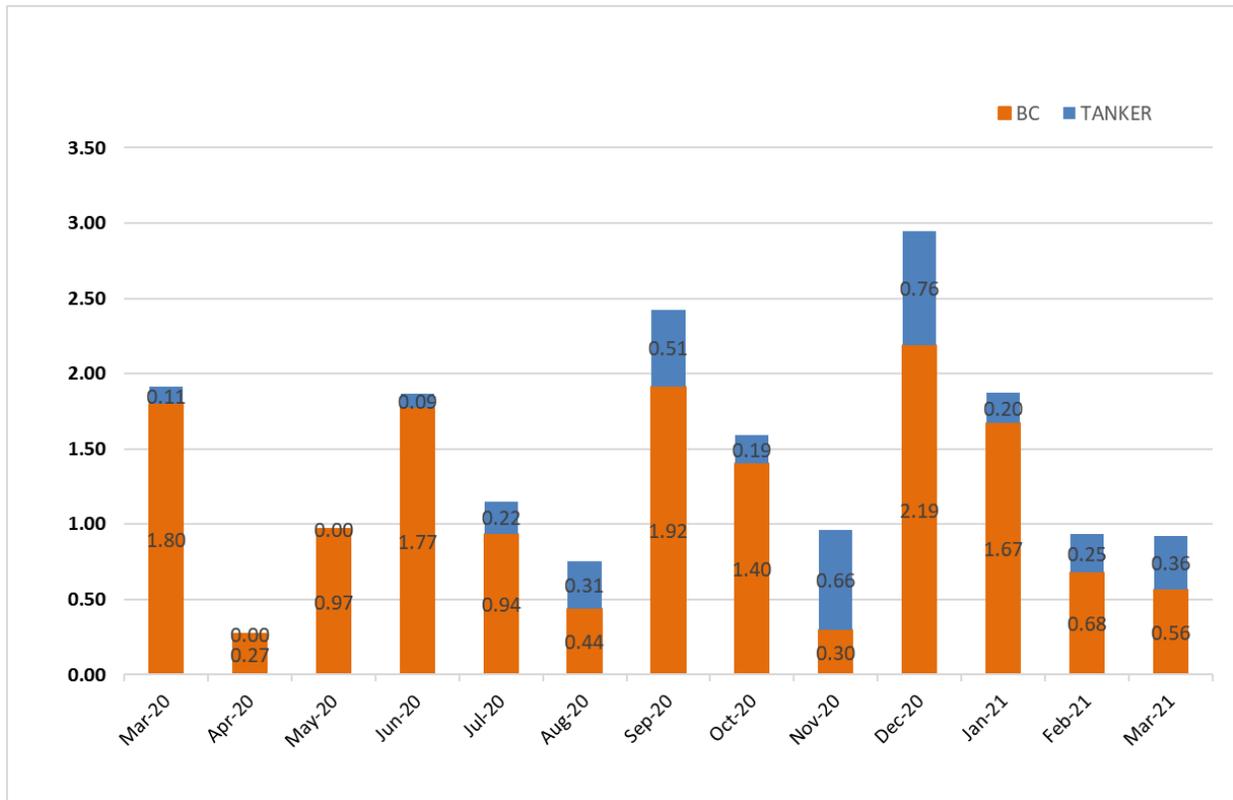


IV. DEMOLITION

2) 해체선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19 년		2020 년 누적				2020 년 3 월		2021 년 3 월			
	Million DWT	No.	Million DWT	누적률 (전년대비)	No.	누적률 (전년대비)	Million DWT	No.	Million DWT	증감률 (전년대비)	No.	증감률 (전년대비)
TANKER	3.54	97	3.52	99.6%	108	111.3%	0.11	9	0.36	214.1%	9	0.0%
BC	7.45	116	15.13	203.3%	154	132.8%	1.80	18	0.56	-68.7%	11	-38.9%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IV. DEMOLITION

V-1.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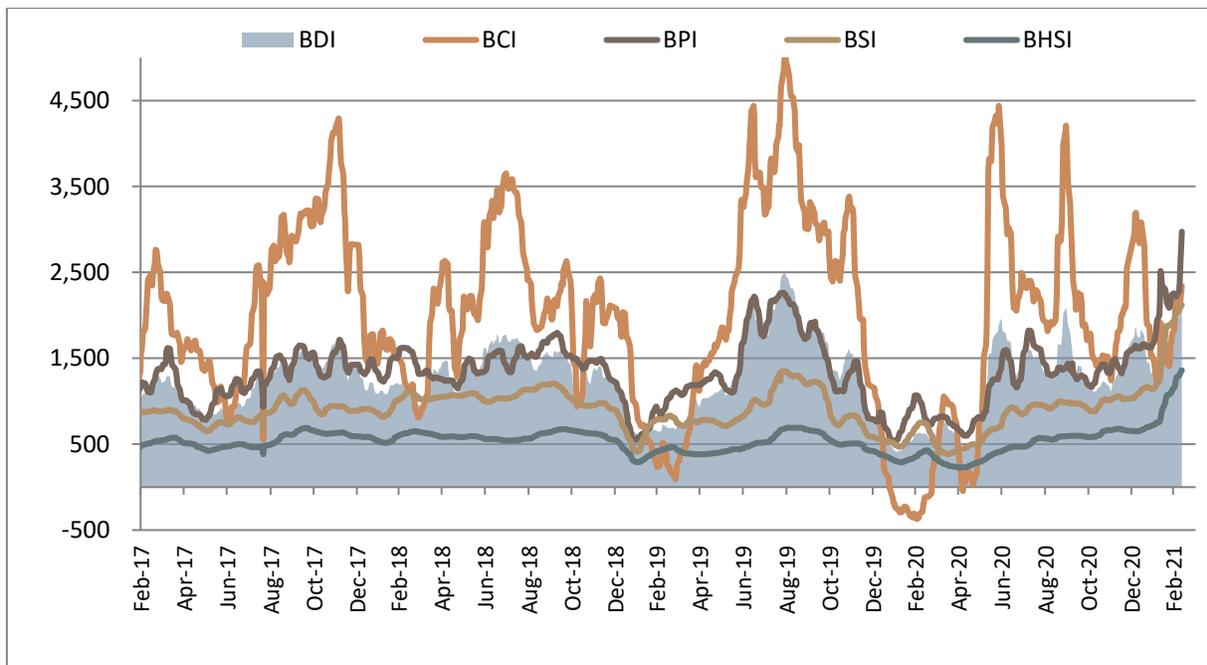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BC	DOLE HONDURAS	16,320	8,424	1991	ITALY	SULZ	485	INDIA
OIL/CHEM	GOLDEN NORI	11,666	3,118	1997	JAPAN	AKASAKA	392	AS IS SINGAPORE



V . KEY INDICATORS

1) Baltic Index

	2021-03-19	2021-03-12	CHANGE	5 Year High	5 Year Low
BDI	2,281	1,960	▲321.00	2518	290
BCI	2,344	2,019	▲325.00	5043	-372
BPI	2,975	2,242	▲733.00	2975	282
BSI	2,122	2,077	▲45.00	2122	243
BHSI	1,360	1,283	▲77.00	1360	183





V . KEY INDICATORS

2) Bunker Price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Chang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IFO380	494.00	▼-36.50	472.50	▼-31.50	491.50	▼-32.50
MGO	532.50	▼-23.50	501.50	▼-44.50	584.00	▼-11.50
LSMGO	523.50	▼-28.50	510.50	▼-29.50	-	-
VLSFO	401.50	▼-19.50	379.00	▼-16.00	371.50	▼-21.50

❖기준일 : 3 월 19 일 기준

3) Exchange Rate

구분	2021-03-19	2021-03-12	CHANGE
미국 달러	1123.70	1137.30	▼-13.60
일본 엔(100)	1031.34	1047.58	▼-16.24
유로	1339.06	1362.94	▼-23.88
중국 위안	173.13	174.84	▼-1.71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VI. STL NEWS & INFORMATION

[시사상식] 전기차 배터리 종류

전기차 배터리는 패키징 형태에 따라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으로 나뉜다.

- ▷ 원통형은 배터리 소재를 원통으로 패키징하는 형태로 가장 전통적인 방식의 배터리
- ▷ 각형은 배터리 소재를 알루미늄의 사각형 형태로 패키징한 배터리
- ▷ 파우치형은 배터리 소재를 필름으로 패키징 한 형태를 말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관련기사] 코로나 팬데믹, 新 반도체 패권 전쟁 시대를 열다

"못 하나가 없어서 편자(HORSESHOE)가 사라졌고, 편자가 없어서 말을 잃었다. 말이 없어 전쟁에서 졌다. 결국 왕국이 멸망했다."

2월 24일(이하 현지시각) 백악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속담을 읊었다. 그의 손에는 손톱만한 작은 반도체가 들려 있었다. "반도체는 '21세기 편자의 못'이다. 공급망에서 작은 실패가 발생하면 큰 충격을 가할 수 있다." 결연한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바이든은 이날 반도체, 배터리 등 4개 품목의 공급망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로부터 약 2주가 지난 3월 9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10%를 밑도는 유럽의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기 위해 1345억유로(약 182조원)를 투입한다는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부위원장은 "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EU 당국의 행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이후 현실과 무관치 않다. 폴크스바겐, 도요타, 포드 등 굴지의 자동차 제조 업체는 올해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줄줄이 공장을 멈춰 세웠다. 코로나 19로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하자, 차량용 반도체 주문을 줄였던 게 발단이 됐다. 예상외로 자동차 수요가 빠르게 회복했지만 이제는 차량용 반도체를 구할 수 없어 차량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반도체 품귀 현상은 시작에 불과했다. 반도체 부족 현상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는 이미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세계 3위 스마트폰 업체 샤오미의 류웨이빙 부회장은 2월 24일 중국 소셜미디어(SNS)에 "올해 스마트폰용 반도체가

VI. STL NEWS & INFORMATION

동났다. 그냥 모자란 게 아니라 '극심하게'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샤오미는 중동, 동남아시아에서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가 모델을 단종시키고 다른 모델을 투입했다.

모니터와 TV 등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집적회로(DDI·DISPLAY DRIVER IC), 노트북, 서버 등에 폭넓게 적용되는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컨트롤러 칩도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다. 제조 업체는 "가격은 상관없으니 반도체만 빨리 구해달라"고 호소할 지경이다. 반도체 가격이 뛰면서 제품 가격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도체 품귀 현상이 빚어진 이유에는 '디지털 전환'이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PC와 노트북, TV 수요가 급증한 것이 반도체 활황으로 이어졌다. 설상가상으로 자연재해까지 겹치며 공급 불안정 상황이 심화됐다. 일본 지진, 미국 한파, 대만 가뭄 등으로 일부 반도체 공장은 가동을 중단했다. 비메모리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업체는 공장을 100% 가동해도 주문량을 다 소화하지 못할 정도다.

D램 가격은 2년 만에 랠리를 보이기도 했다. 시장조사 업체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3월 1일 기준 PC D램 범용제품 DDR4 8현물 가격은 개당 4달러 37센트였다. D램 현물가가 4달러를 넘어선 건 2019년 4월 이후 처음이다. 트렌드포스는 올해 2분기 서버 D램 가격 인상 폭 전망을 8~13%에서 10~15%로 올려 잡았다.

[출처 : 조선비즈]



VI. STL NEWS & INFORMATION

STL GLOBAL Co., Ltd.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Tel: +82-2-776-0840 (Rep.) Fax: +82-2-776-0864

E-mail: seoul@stlkorea.com www.stlkorea.com

| **SALE & PURCHASE**

Neal S.I. Kwon (권순일 상무)

Senior Director

Tel. 070-7771-6410

Mob. 010-9496-0523

snp@stlkorea.com

neal@stlkorea.com(Personal)

| **CHARTERING**

Sancho Kim (김현진 이사)

Director

Tel. 070-7771-6404

Mob. 010-5756-9378

biz@stlkorea.com

sancho@stlkorea.com(Personal)

| **RESEARCH**

Anna Lee (이혜란 과장)

Manager

Tel. 070-7771-6403

Mob. 010-2258-5561

snp@stlkorea.com

anna@stlkorea.com(Personal)

Joovi Park (박주비 대리)

Assistant Manager

Tel. 070-7771-6419

Mob. 010-7794-6182

snp@stlkorea.com

joovi@stlkorea.com(Personal)

Mike Hong (홍창목 부장)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7

Mob.010-4855-8055

biz@stlkorea.com

mikehong@stlkorea.com(Personal)

H.S. Lee (이현성 부장)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2

Mob.010-4525-5079

biz@stlkorea.com

hslee@stlkorea.com(Personal)

| **AGENCY OPERATION** (오수현 차장 Tel. 070-7771-6402)

| **FERROALLOY LOGISTICS** (안지영 차장 Tel. 070-7771-6405)

| **WAREHOUSE MANAGEMENT** (진정식 과장 Tel. 070-7771-6406)

E-mail. operation@stlkorea.com

에스티엘 지투어 (www.stlgtour.com)

Tel. 1661-8388 (Rep.) Fax. 02-6499-8388

E-mail. tour@stlgtour.com

| 기업/일반 단체 항공 예약

| (김영하 실장 Tel.070-4800-0151)

전남요트아카데미 (www.stlyacht.com)

Tel. 061-247-0331 Fax. 061-247-0333

E-mail. academy@stlyacht.com

| 보트/요트 면허취득 (이진행 실장 Tel.010-2777-4027)